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  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30

# 발람과 말하는 나귀

(민수기 22:1~35)



**‘모압’ 나라 왕의 이름은 ‘발락’이었어요.  
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 근처까지 쳐들어왔다는  
소식에 발락 왕은 두려움에 빠졌어요.**

**그래서 궁리 끝에, ‘브돌’이란 곳에 사는  
예언자, ‘발람’을 부르기로 했죠.**

**“음, 발람의 힘을 빌려야겠다.  
발람이 누구더냐 누구든지 발람이 복을 빌어주면  
복을 받고, 누구든지 발람이 저주를 하면  
저주를 받는다는 그 발람이 아니더냐? 흠...”**

**발락 왕은 모압의 귀족들을  
발람에게 보냈어요.**

**“예언자 발람이여, 당신은 모두가 인정하는  
지혜로운 예언잡니다.  
우리의 왕께서 예언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 
저주해서 물리쳐달라고 부탁하라 하셨습니다.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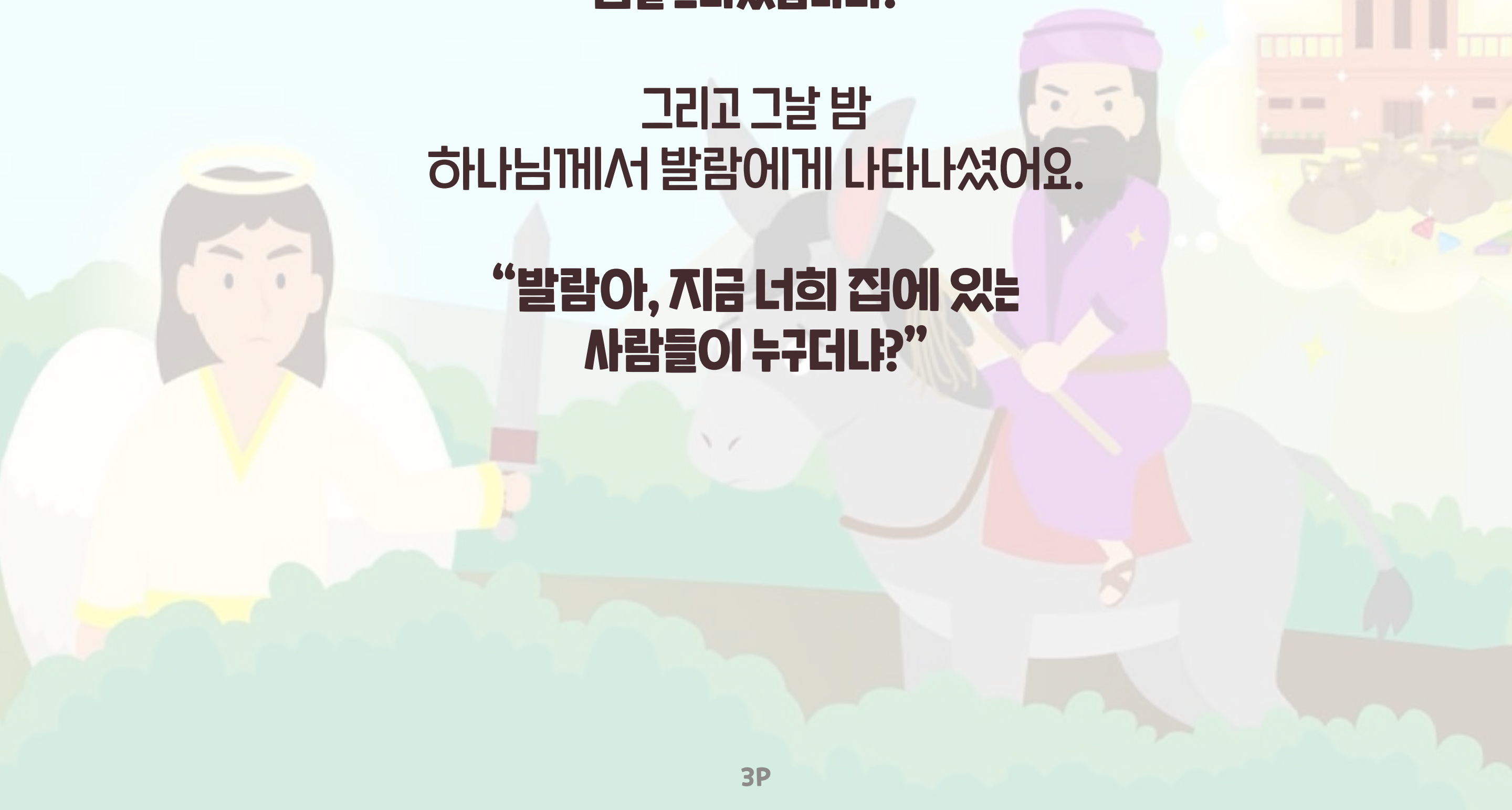
**그러면서 귀족들은 가져온 예물을 보여주었어요.  
예물을 본 발람은 순간 혹했지만  
다행히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.**



**“글쎄요. 하나님께서 제가 그리하는 걸  
원하실는지 모르겠네요.  
오늘 하루 여기서 묵으시면 제가 밤새  
하나님의 뜻을 여쭙어 보고 내일 아침에  
답을 드리겠습니다.”**

**그리고 그날 밤  
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.**

**“발람아, 지금 너희 집에 있는  
사람들이 누구더냐?”**



**“예.. 하나님, 그들은 모압에서 온  
귀족들이네요.  
발락 왕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 
제가 저들의 부탁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 
저주를 내려도 되겠습니까?”**

**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**

**“안 된다, 발람아. 이스라엘 백성들은  
내가 축복한 자들이란다.  
그러니 모압 귀족들을 따라가지 말거라.”**

다음 날 아침,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 
귀족들에게 전했어요.  
귀족들은 터덜터덜 빈 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.

그러자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귀족들을  
더 많이 보냈어요.  
이번에는 전에 가져갔던 예물보다도  
더 놀랄만한 제안을 했죠.

“예언자 발람이여, 발락 왕께서  
당신이 원하는 건 모든지 주겠다고 하셨소.  
그러니, 우리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리쳐주시오.”



원하는 걸 모든지 준다니...이번엔 발람도  
유혹에 솔깃 할 수 밖에 없었어요.  
그래도 겨우겨우 마음을 다 잡고 이렇게 말했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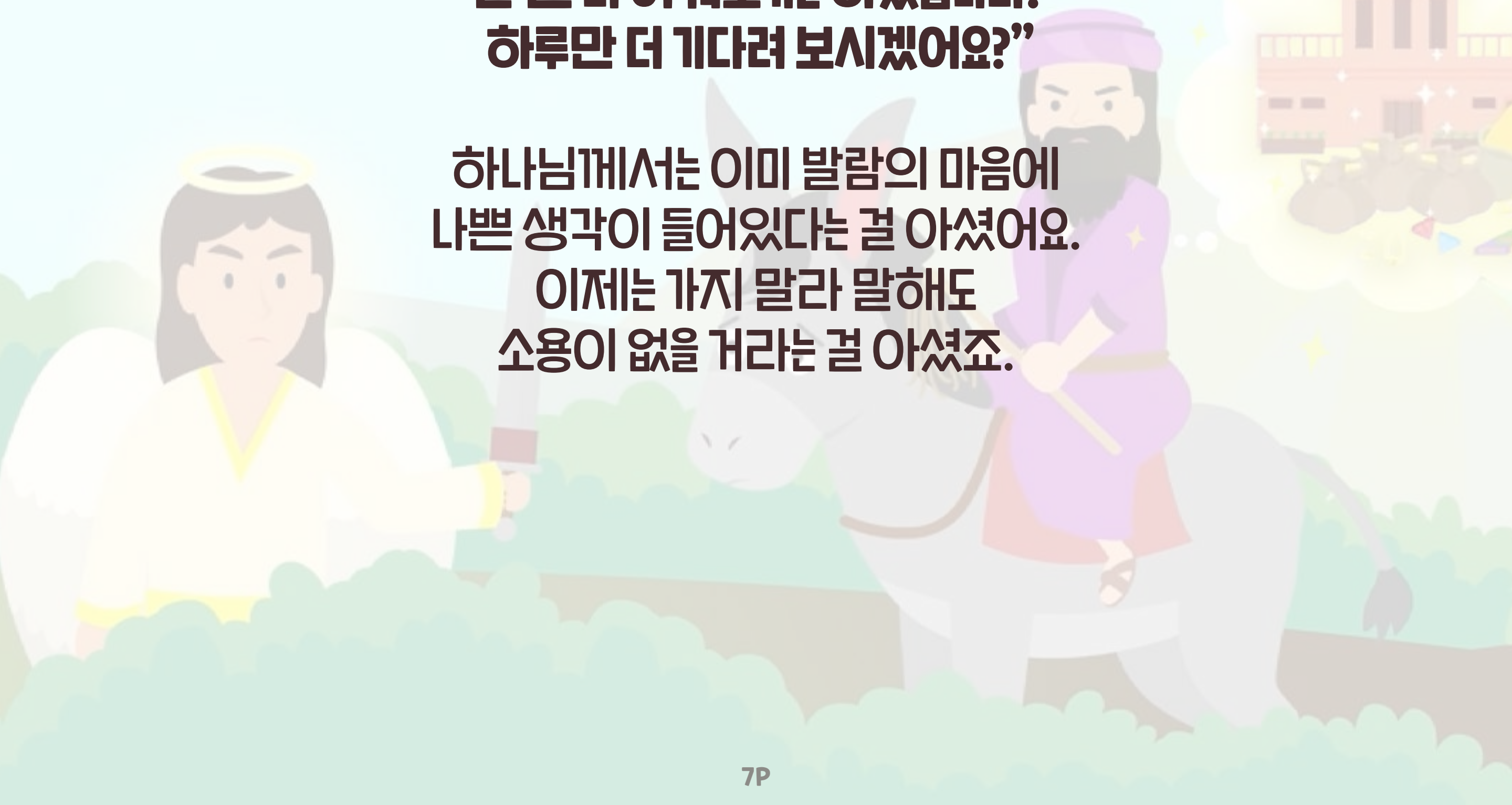
**“거 참.. 곤란하게 됐군요. 그래도 안 됩니다.  
당신의 왕이 은과 금으로 가득찬 왕궁을  
통째로 준다 해도, 나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 
따라야 됩니다. 에헴.”**

하지만 이미 발람의 머릿속에서는 각종 금은보화와  
화려한 집, 값비싼 선물들 생각이 커지고 있었어요.

그래서 이렇게 말했죠.

**“흠.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하나님께  
한 번 더 여쭙보기는 하겠습니다.  
하루만 더 기다려 보시겠어요?”**

하나님께서서는 이미 발람의 마음에  
나쁜 생각이 들어있다는 걸 아셨어요.  
이제는 가지 말라 말해도  
소용이 없을 거라는 걸 아셨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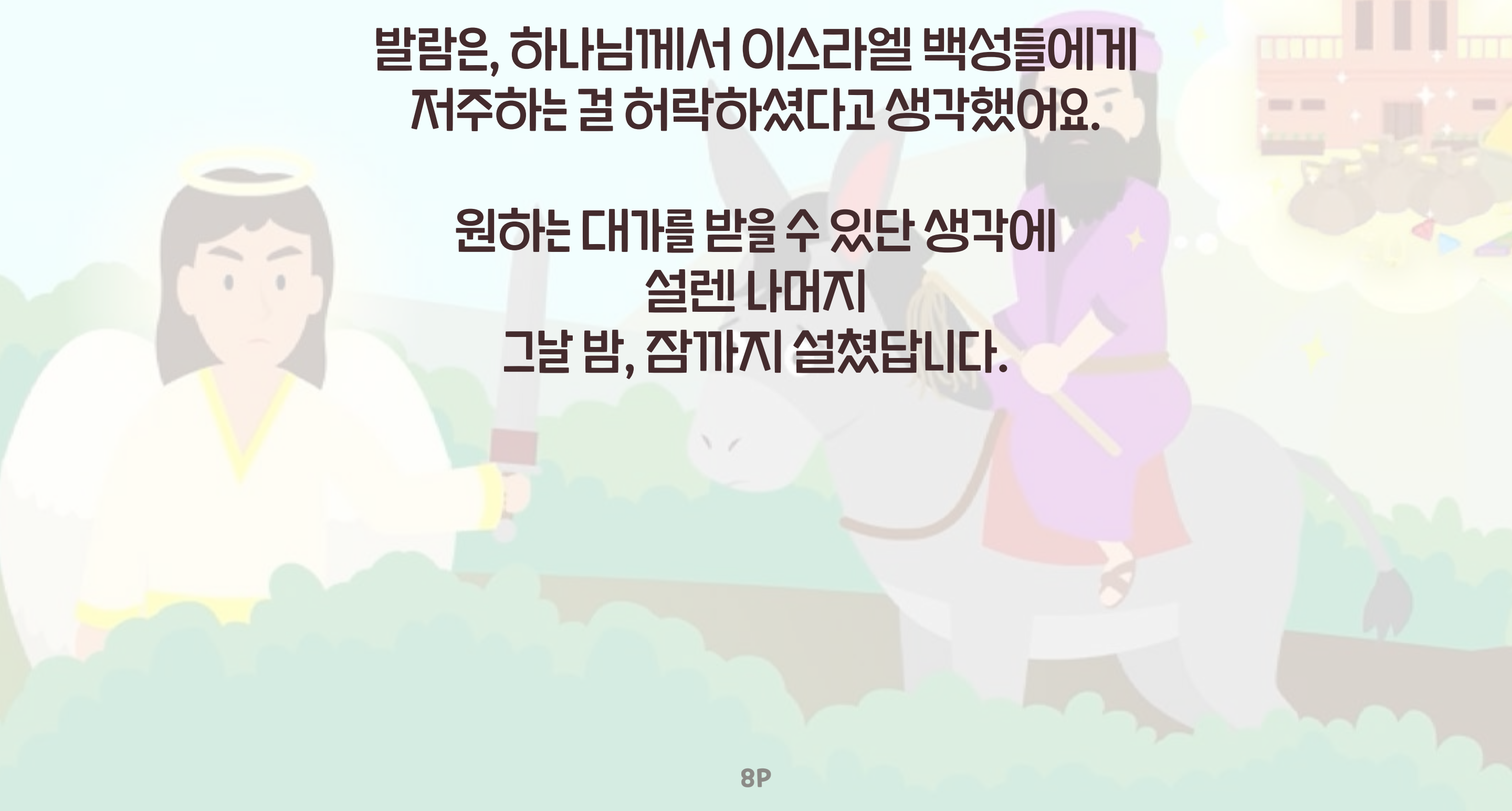




**“그래, 한 번 그들과 함께 가 보거라.  
다만, 너는 반드시 내가 말하는 대로만  
행동해야 할 것이다. 알겠느냐?”**

발람은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 
저주하는 걸 허락하셨다고 생각했어요.

원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단 생각에  
설렌 나머지  
그날 밤, 잠까지 설쳤답니다.



다음 날 아침!

“아, 거 빨리들 일어나세요!  
갈 길이 바쁩니다, 갈 길이~”

발람은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 
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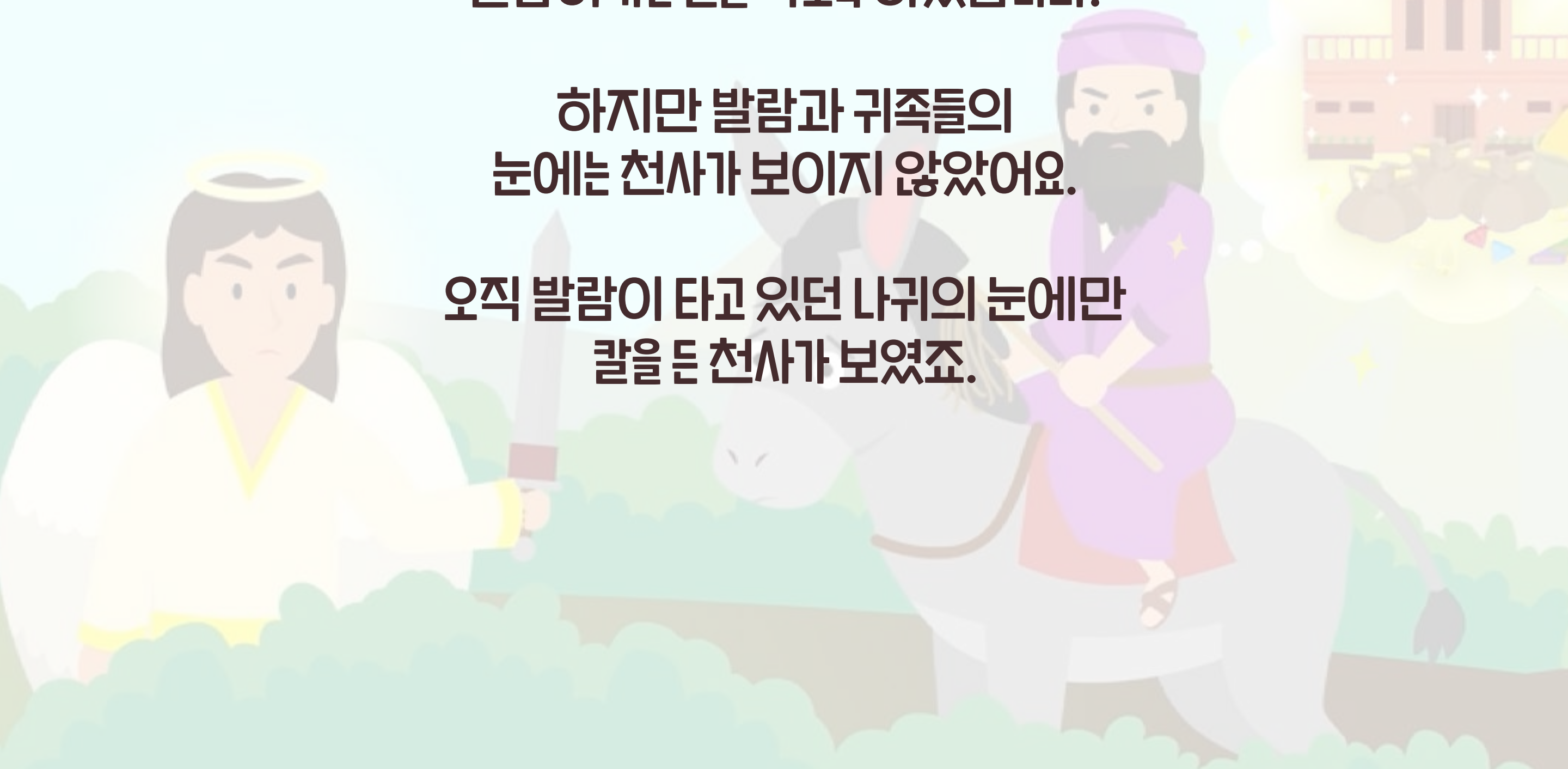
서둘러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떠날 준비를 마쳤죠.  
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했지만  
이미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.

그런 발람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 
화가 나셨어요.

그래서 칼을 든 천사를 보내셔서  
발람이 가는 길을 막도록 하셨습니다.

하지만 발람과 귀족들의  
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았어요.

오직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의 눈에만  
칼을 든 천사가 보였죠.





**“히히히힝!”**

나귀는 천사가 무서워서 길에서 벗어나  
밭으로 들어갔어요.

**“아니, 이 녀석이 왜 이래?  
정신차려 이 녀석아! 이랴!**

당황한 발람은 나귀에게 채찍질을 했어요.

하지만 천사는 계속해서 나귀의 앞길을 가로막았고  
나귀는 천사를 피하기 위해 중심을 잃고 뒤틀거리다  
돌담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대로 자리에  
주저앉기도 했어요.

그때마다 화가 난 발람은 채찍으로  
자기의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죠.

바로 그 때!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어요.  
그러자 놀랍게도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했죠.

“히히힝! 주인님,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 
세 번씩이나 때리는 건가요?”

발람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, 나귀가 말하는 것을  
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못했어요.

**“야, 이 녀석아, 지금 내 손에 칼이라도  
있었으면 당장 너를 어떻게 해 버렸을 게다.  
뭐를 잘했다고 반항이냐?”**

그 때,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.  
그제야 발람의 눈에도 천사의 모습이 보였죠.  
칼을 배배든 천사의 모습이요!

천사가 발람에게 말하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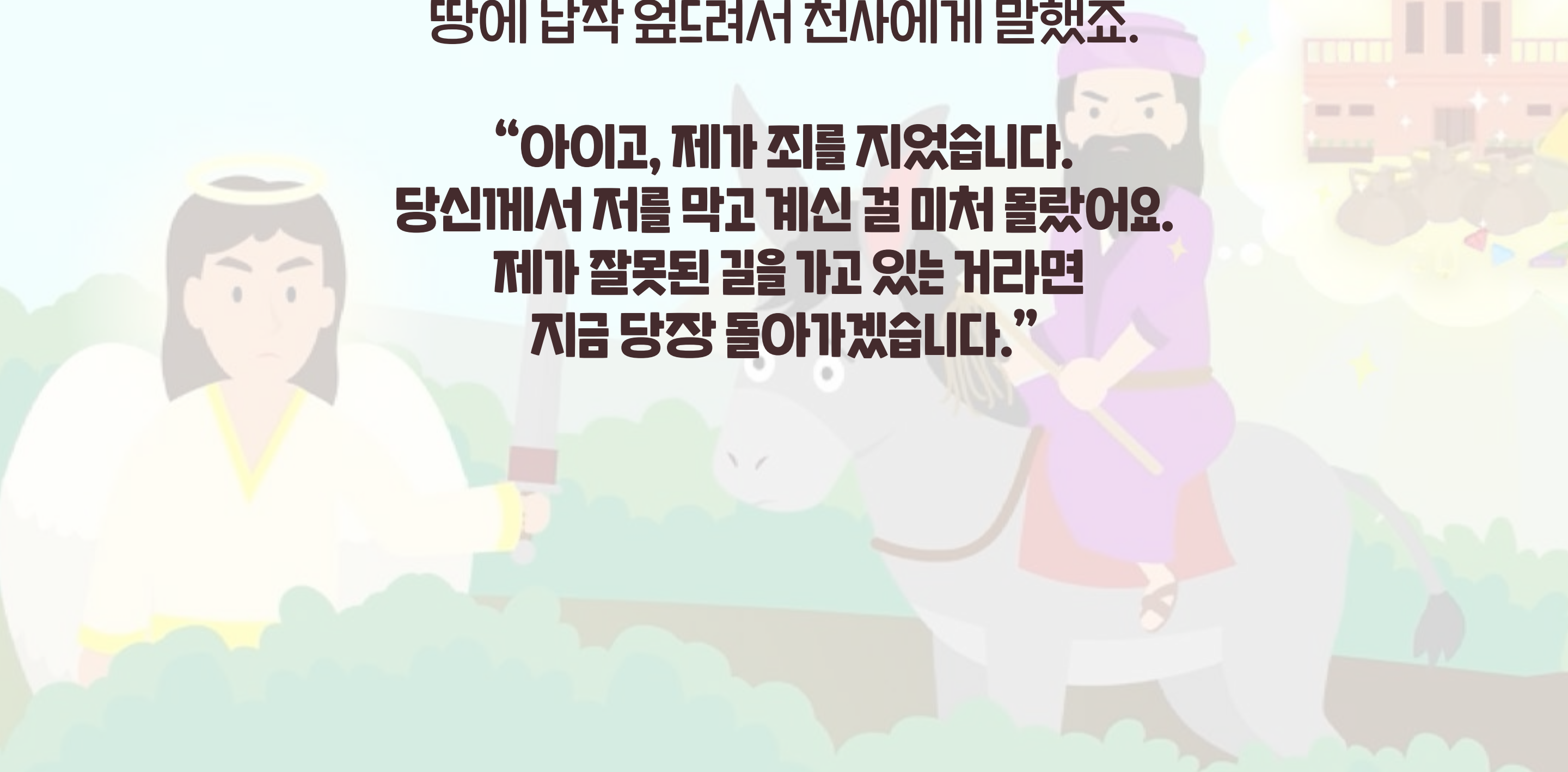
**“너는 왜 나귀를 세 번씩이나 때린 것이냐?”  
나귀는 그저 나를 보고 피했을 뿐이다.  
나귀가 너의 목숨을 세 번씩이나 구해줬단 말이다.”**



그제야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에  
화가 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.

땅에 납작 엎드려서 천사에게 말했죠.

**“아이고,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.  
당신께서 저를 막고 계신 걸 미처 몰랐어요.  
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라면  
지금 당장 돌아가겠습니다.”**



그러자 천사가, 발람에게 말했어요.

**“모압 귀족들과 함께 가거라.  
하지만 꼭 명심해야 한다.  
너는 모압의 왕에게 오직 하나님의  
말씀만을 전달해야 한다.”**

그렇게 혼쫓이 난 발람은 모압 땅으로  
가게 되었어요.

과연 발람은, 하나님의 말씀에  
100% 순종할 수 있을까요?

